

# 합천군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 일상이 영화가 되는곳 · THE 영화같은 합천

합천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상이 영화가 되는곳, THE 영화같은 합천' 특화재생형을 신청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확정으로 합천읍 활성화지역에서는 총 175억원(국비105억, 지방비 70억)의 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합천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도에는 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왓지질 삼가삼심(三嘉三心)' 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

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경남도내 군부에서는 두 번째로 2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합천읍 특화재생사업의 비전은 '일상이 영화가 되는 곳, THE(더) 영화같은 합천'으로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합천 문화관광 활성화, 미디어 소통 마을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합천의 원도심을 재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합천읍 도시재생 뉴딜의 단위 사업으로는 영상문화 활력거점 조성 및 운영, 합천 기행 체류형 거점 조성, 마을 영상문화 인프라 조성 등 6개 단위사업 및 16개 세부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준기자

# 합천 황매산군립공원 '한국관광 100선' 선정

합천군의 대표 관광지 황매산군립공원이 '한국 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3~2024년 한국관광 100선은 2년에 한 번씩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꼭 가볼 만한 국내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합천 황매산군립공원은 2021년부터 2회 연속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를 굳건히 했다.

황매산은 영남의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며 사계절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봄에는 진분홍 산철쭉, 여름에는 초록평원, 가을에는 은빛 억새, 겨울에는 눈꽃으로 알려져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합천 황매산의 황매평원은 1900년대 낙농업 농가들이 하나둘 떠난 자리에 억새가 자라 현재의 철쭉과 억새가 피는 독특한 경관을 갖게 됐다. 또한 산 정상부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해 남녀노소,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철쭉군락지에 올해 9월말 준공된 무장애나눔길과 12월말 준공하는 황매산 숲속야영장은 내년 황매산의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80 X 113 mm

105 X 134 mm

# 합천군 마늘 · 양파 산업 한단계 도약 계기 맞아

## 국도비 사업비 25억6000여만원 확보 사업추진 탄력



합천군은 국 · 도비사업비를 역대 최고액인 25억 6천여만원을 확보하며 마늘 · 양파 산업이 한단계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합천군

합천군에서는 주요 소득 작물인 마늘 · 양파 산업발전을 위한 국 · 도비 사업비를 역대 최고액인 25억 6천여만원을 확보하며 마늘 · 양파 산업이 한단계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지난 15일 합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발자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20억원 등 마늘 · 양파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 · 도비사업비 25억 6천여만원을 확보했

다고 전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발자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합천새남부농협이 선정되면서 동부농협에 이어 우리군에서 2년 연속 선정되어 총 20억원의 사업비

를 확보했다. 수확기 가격폭락과 단경기 가격상승 등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참여농가 조직화로 생산비 절감과 철마 퍼레트 출하 저온저장고 신축을 통하여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기술 보급 부무 부처인 농촌진흥청과 기계를 통한 노동력 절감 평가회, 저장성 향상 현장컨설팅 개최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민감채소(마늘, 양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시범' '난지형 마늘 수직형 속확기 신기술 시범' 등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9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으며 마늘 양파 생산기술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농업을 촉진시킬 기반을 다지게 됐다.

특히 지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늘 주아 중구 생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남농업기술원에서 분양 받은 '조직배양 마늘(무병종구)의 주아를 활용한 중구생산 확대사업' 이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품질 마늘 중구 생산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일동채소 표준재배 생력화 시범' '양파 저장성 향상기술 시범' 사업도 선정돼 7천만원의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인건비 절감과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해식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와 함께 현장에로 기술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영농을 통한 소득원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마늘 재배면적은 764ha 전국 8위, 양파 재배면적은 811ha로 전국 5위의 위치에 있으며 마늘과 양파를 대표적인 밭작물로 육성하고 있다.

김상준기자

266 X 133 mm